

소견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여러분!

2023 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제이엔케이히터(주) 대표이사 김방희 입니다.

한국 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로 자리매김한 한국화학공학회는 지난해 창립 60 주년을 지나 이제는 화학공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립 70 주년을 향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회장님들, 이사진, 평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3 년간 코로나 19 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첫해 봄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신 전/현 회장님과 집행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한국화학공학회는 포스트 코로나와 생성형 AI '챗 GPT' 등장이 불러올 대격변의 시대에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등 친환경적 노력과 경제성장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실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성장둔화로 인한 학생들의 취업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우리 한국화학공학회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부회장으로 한국화학공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40 년간의 Oil & Gas 플랜트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전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산업계-학계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CEO 포럼, 화공 114 등 우수한 기존 학회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산학연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VOC 청취 및 정부와 정치권의 화학산업관련 각종 포럼 및

간담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회 조직 효율화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의 각 부문위원회, 지부, 업무위원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조직과 규정을 개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평의원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학술대회는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만남과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와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 재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학생과 젊은 회원들이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상상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 가족 여러분 !

한국화학공학회가 화학산업과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화학공학인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응하는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년 8 월 25 일 김방희 올림.